

일본에 있어서의 가정교육의 실태*

— 소 · 중 · 고교를 중심으로 —

한 옥 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Realities of Homemaking Education in Japan

—Special Reference to Homemaking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Han, Ok-Soo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alities of homemaking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in Japan and to obtain the basic guidance for the improvement of effect of homemaking education in Ko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Home economics education takes an important role for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homemaking education is also clarified in Japan.
2. Homemaking education is provided as independently required subject of coeducation in Japanes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many people think that homemaking coeducation is necessary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3. Curriculum is reorganized continuously and variously in Japan, so that the girls and the boys can learn knowledge and skill which is necessary for them to live home lives, corresponding with circumstance and social changes that surround home.

I. 서 론

일본의 가정교육의 본질을 藤枝(1989)는 「가정생

활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창조 발전시키기 위한 교과」이며, 또한 가정교육의 본질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창조 발전시키는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

*이 연구는 1990년 4월부터 1991년 3월까지 교육부 해외파견교수의 연구활동 보고서임.

라고 하였다.

또한 가정과 교육을 뒷받침하는 가정과의 교과이론은, 전문과학으로서의 가정학에서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가정과교육은 사실상 미국의 가정과교육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수井(1990)²⁾는 미국의 가정학의 본질이념과 방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인간」과 「환경」과 그의 「상호작용」이란 세개의 핵심 용어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일본의 가정학이 잘못 이해되기 쉬운 것이 환경에 대한 개념이다.

미국 가정학의 정의를 시작으로 하여 미국 가정학이 소개되고 논의될 때는 반드시 나오는 용어가 「환경」이다.

이 일에 관하여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의 Home Economics를 이해하는데 전제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 미국의 Home Economics에 관한 환경에 대한 생각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가정학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Elen·H·Lichards이다.

일본에서 「환경」이라고 하면 일광·공기·물·토양 등 「자연」, 더욱이 「보다 큰 그것」으로 인식되고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Lichards에게 있어서의 환경은 「물적환경」(physical environments)과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환경은 각각 「근접환경」(near environments)과 「보다 큰 환경」(lager environments)으로 구분된다. 즉 물적환경에는 의·식·주와 이것들을 위하여 조달되는 금전 등 인간에 근접해있는 물적환경과 일광·공기·물·토양 등의 보다 큰 물적환경이 포함된다.

또는 사회적 환경으로서는 부부(夫에 있어서는 婦는 환경), 친자(子에 있어서는 親은 환경), 친척 이웃등 가족·개인에 근접한 사회적 사회환경과 학교, 사회, 조합, 기업, 지방 공공단체, 나라, 세계 등 보다 큰 사회적 환경이 포함된다고 서술한다.

家政學과 家庭科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가정학 성립사와 가정과교육사의 입장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가정학과 가정과의 발생과 발달을 둘러싸고, 그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사회적 배경을 신·구 두

개의 발달단계로 규정지을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낮은 성격과 내용의 단계」이고 그 두번째는 「새로운 성격과 내용의 단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의 발달 단계를 성립시킨 요인은,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의 발생」과, 「사회적으로는 사회 민주화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의 변혁의 시기는 明治시대(1870)부터 大正을 거쳐 昭和 20년(1945)까지의 80년간에 이르는 「낮은 성격과 내용의 가정학과 가정과」의 「전기의 단계의 시대」이고 昭和 20년(1945)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는 「새로운 성격과 내용의 가정과」의 「후기의 단계의 시대」의 두 시대로 대별할 수 있다.³⁾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육의 발자취, 1989년에 획기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가고있는 소, 중, 고등학교의 새로운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시대적 요청에 순응하고 봉건적인 가부장 제도하에서 어렵게 시행되고 또한 시행되려는 가정과 교육의 남녀 공동이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및 실제와 가정과 교육에 대한 각계의 의식과 앞으로의 과제 등을 「후기 단계의 시대」를 중심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흐름속에서 가정과 교육사의 변천과정과 사회환경의 변화가 가정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그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Elen·H·Lichards의 가치관 등도 함께 검토해 보려한다.

특히 남녀공동 이수 동향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6차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연구과제가 산적한 우리의 가정과 교육계획 수립에 다소나마 공헌하고자 하는데서 그 의의를 찾으려 한다.

II. 일본의 가정과 교육의 발자취

가정과교육을 주도하는 가정과의 교과이론은 생활과학으로서의 가정학에 의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가정학의 발달의 경과를 常見(1971)⁴⁾는 「家政學 源流의 시대」, 「가정학 誕生의 시대」, 「가정학 分化의 시대」, 「가정학 變容의 시대」, 「가정학 復興의 시대」의 5가지의 시대적 구분을 바탕으로 그 특질을 기술하고, 일본의 가정학 발달의 경과를 명백하게 하였다.

明治시대(1870년대)가 되면서 家政에 관한 생각

은 「교육적 측면」과 「학문적 측면」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목적과 범위를 검토하며 체계화 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것은 歐美, 특히 미국에 있어서의 가정학의 발달과 연구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여러 문헌들이 번역되고 의역되어 일본적인 것으로 소화되어지기도 한다.

당시의 家政文헌은 「傳統的 家政書」, 「翻譯의 家政書」, 「日本的 家政書」의 세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江戸 말기부터 조성된 여학교의 창설은 이때부터 결실을 맺게 되며 비로소 여자교육의 여명을 맞이한다. 이것이 「家政學 誕生의 時代」이다.

그 이후에는 의복, 식물, 피복에 관한 기술면의 공부와 연구에 머무를 정도였다. 이것이 「家政學 分化의 時代」이다.

제2차 세계대전중은 모든것이 전시체제하에서 이루어져 전력증강을 위한 가정학이 제창되어 가정학은 가정과와 함께, 주로 기술면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협력하는 정도였다. 이것이 「家政學 變容의 時代」이다.

그후 昭和 20년(1945) 종전후에는 많은 여자대학이 신설되고 가정학부의 창설을 계기로 가정학은 처음으로 신장된 모습으로 탄생하여 새로운 학문으로 발전하고 부흥한다. 이것이 「家政學 復興의 時代」라고 볼 수 있다.

原田 등(1978)⁹⁾은 昭和 전기(1920년대)의 소학교 가정과 교육중 재봉교육은 기능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가사교육은 「종래의 이과 가사교과서」에 의하며 또한 새로운 가사과의 생각을 가하여 기본적 교재를 중시하고 과학적 교재의 활용에 박차를 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음은 가정학 부흥의 시대를 시작으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 소·중·고의 가정과 교육의 발자취를 검토해 보려한다.

1945년 12월 「여자교육 쇄신요강」이 발표되는데, 이것은 여자에게도 고등교육 기관의 문호를 개방하고 중등교육의 남녀평등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전쟁전의 남녀별학 체제에서 보면 일대 변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46년 문부성에서 발행된 「新教育指針」의 중요내용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婦人參政權에 수반하는 개인의 자각과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

②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의 철폐, 특히 고등교육의 확장.

③ 과학적 교양과 취업을 위한 능력의 육성.

가부장 제도하에서의 여성상이나 교육에 대한 비판 또는 경제적으로 자립한 과학적 합리적 정신을 가진 여성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

소화 20년(1945) 8월 종전과 함께 일본의 교육은 피점령하의 체험을 하면서 팔목할 변혁이 행하여진다. 다음해 21년(1946)에는 문부성이 내놓은 「신교육지침」이 있고 22년에는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이 제정 된다.

학습지도요령 일반편(시안)이 간행되고 종래의 수신, 공민, 국사, 지리가 변하여 사회과, 가정과, 자유연구가 교과로 되면서 가정과가 새롭게 탄생하여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교과로 대두된다.

(1) 소학교 교육

일본의 소학교에 가정과라고 하는 명칭이 탄생된 것은 전쟁후 처음있는 일이라고 武井 등(1977)¹¹⁾은 보고한다.

소화 22년(1947) 5월 학습지도 요령에 「가정과가 새로운 이름과 함께 내용을 다르게 가하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고 다음에는 「가정과가 지금까지의 가사과와 달라서 남녀 함께 모든 것을 이수하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다. 단 요리나 재봉과 같은 내용이 여자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남자에게는 대신하여 가정공작을 과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것에 따라 가정과의 개념규정이 설명되고 새로운 교과명과 함께 남녀가 함께 공통으로 학습하는 교과가 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다.

이때에는 또한 일본 전국을 휩쓴 경험 커리큘럼 등에 영향을 받아 가정과 폐지론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대두되기도 하였다.

1989년도의 소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에서 크게 변경된 것은 저학년의 이과, 사회과가 없어지고 생활과가 신설된 것이다.

(2) 중학교 교육

소화 22년(1947)에 학교 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가정과는 필수로서 (농업·공업·상업·수산업·가정)의 한과목이 되며 남녀 구별없이 한과목 또는

몇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가정과는 「가정과학」의 「처음말」에 있는 것처럼 종래의 가사 재봉과는 다른 「가정 건설자」를 육성하는 새로운 교과로서 출발하였다.

1) 직업·가정과(1949. 12) 및 개정 직업·가정과(1956. 5)

학습지도 요령의 개정에 따라 직업·가정으로 변경되었다.

같은때에 「산업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산업교육의 중요성이 법적으로 확인되기에 이른다.

교과로서는 필수·선택 함께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을 중심으로 한 학습」으로 편성한 것과 지역의 실태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을 설립한 것이다.

일 중심의 학습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하면서 문부성은 기능 경제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 사회적 면에 관한 지식, 기능, 태도를 「주로 실천활동을 통하여 학습한다」로 되어있고 일반교양이기 때문에 남녀공동 학습으로 되었다.

2) 기술·가정과(1958. 3)는 도덕교육의 철저, 기초 학력의 충실, 과학교육의 향상을 목적으로 현행의 기술 가정과가 설치되기에 이른다.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두계열을 개설한 것이 특징이다.

(3) 고등학교의 가정과

1943년의 학제개혁으로 당시의 고등여학교에 있어서의 가사과, 재봉과를 한 교과로 통일하여 「家政科」라고 칭하였다.

1947년에 「家庭科」로 명칭이 변경되기도 한다.

1948년 신제 고등학교 가정과 시안은 「사회의 단위는 가정이고 구성분자는 개인이다」라면서 좋은 가족의 일원, 좋은 가정의 건설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선택교과로 되어진다.

1978년 개정에서 모든 여자에게 4단위 필수가의 목적으로 부과되어 강력한 것이 되었다.

한편 가정건설의 지식, 기능은 남자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남녀 공학, 공수의 실천을 도모하는 학교도 출현하기에 이른다.

1975년부터 시작된 국제연합 부인운동 10년의 발걸음 중에서 「부인에 대한 모든 차별 철폐조약」이 채택되어 일본도 1980년에 서명을 하면서 고용이나 교육의 차별의 재검토가 행하여지고 별학 가정과도 문제시되기에 이른다.

1988년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되면서 소·중·고등학교에 일관된 남녀 공학·공수의 가정과교육이 성립되었다.

「가정 일반」, 「생활 기술」, 「생활 일반」의 어느 것이나 선택하여 필수 4단위를 남녀함께 이수하는 것이 1994년도부터 시행되기에 이른다.⁸⁾

III. 개정된 신 교육과정의 내용

1989년 3월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 의하면 소학교의 가정과, 중학교의 기술·가정과 및 고등학교의 가정과에 대하여서는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사회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남녀가 협력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일이나,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시키는 일 등의 관점에서 그 내용 및 이수의 방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실천적, 체험적인 학습을 더욱 충실하게 하도록 개선율도 모한다라고 되어있다.⁹⁾

1. 소학교 가정과 교육내용

제1목표

의식주 등에 관한 실천적인 활동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기르며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정생활을 보다 잘 하려고 하는 실천적인 생활태도를 기른다.¹⁰⁾

제 5학년

A 피복

(1) 피복의 용도를 알고 필요에 따른 평상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다.

(2) 평상복의 정리 정돈이나 단추등을 달수 있게 한다.

(3) 간단한 소품이나 주머니를 만들 수 있게 한다.

B 식물

(1)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그 활동 및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의 종류를 알게하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2) 야채나 계란으로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여 놓고 서로 권하면서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C 가족의 생활과 주거

(1) 가정에 있어서 가족의 일이나 역할을 알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정의 일에 협력할 수 있게 한다.

(2) 신변의 정리 정돈이나 청소하는 방법을 알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정일에 협력할 수 있게 한다.

(3) 생활 주변에 있는 물건의 활용방법을 알고 불용품이나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제 6학년

A 피복

(1) 평상시 입을 옷을 잘 선택할 수 있으며 피복의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한다.

(2) 평상복의 손질법을 알아 세탁 및 수선을 할 수 있게 한다.

(3) 간단한 앞치마나 카바-류를 연구하여 만들 수 있게 한다.

B 식물

(1) 영양을 고려한 식물을 섭취하며 한 끼분의 메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흔히 사용되는 식품의 간단한 조리가 되도록 한다.

(3) 가정생활에 있어서 회식의 의의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워서 즐거운 회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C 가족의 생활과 주거

(1) 생활시간의 유용한 사용법을 연구하여 가정생활에 서로 협력할 수 있게 한다.

(2) 구매 방법이나 돈쓰는 방법을 알아서 계획적인 생활의 필요성을 알도록 한다.

(3)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소품을 천 등을 이용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2. 중학교 기술·가정과의 교육내용

목표 ;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하여,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과 기술과의 관련에 관하여 이해를 깊게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창조하는 능력과 실천적인 태도를 기른다.¹¹⁾

A 목재가공 B 전기 C 급속가공

D 기계 E 재배 F 정보기초

G 가정생활 H 식물 I 피복

J 주거 K 보육

상기 A에서 K까지의 11영역중에서 7이상의 영역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때에 「A 목재가공」, 「B 전기」, 「G 가정생활」

및 「H 식물」의 4영역에 관해서는 남녀 구별없이 이수하도록 한다.

그러나 남녀를 모든 분야에서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는 「가정계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기술계열」을 가하고, 남자는 「기술계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가정계열」을 추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의 남자는 A에서 E까지의 영역중에서 5영역, F에서 I까지의 영역중에서 한 영역을, 여자는 F~I까지의 영역중에서 5영역을, A~E까지의 영역중에서 한 영역을 이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B C 및 H의 남녀 함께 이수시키는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목재가공

(1) 목제품의 설계

(2) 목재등의 특징과 사용법

(3) 목공구나 목공기계의 사용법과 가공법 역할

(4) 일상생활이나 산업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재의 역할

B 전기

(1) 전기기기의 보수 방법

(2) 간단한 전기회로의 설계와 제작

(3) 전기기기의 조립 및 전기

(4) 일상생활이나 산업중에서 전기의 역할

G 가정생활

(1) 가족생활 (2) 가정의 경제

(3) 가정의 일 (4) 가정생활과 지역간의 관계

H 식물

(1) 청소년의 영양과 일상식의 메뉴

(2) 식품의 성질과 그 선택

(3) 일상식의 조리

(4) 적절한 식사법과 식사에법

I 피복

(1) 간단한 피복 만들기 (2) 수예

(3) 생활과 피복과의 관계

J. 주거

(1) 가족의 생활과 주거와의 관련 및 쾌적한 생활방법

(2) 주거공간의 계획

(3) 실내환경과 설비에 관한 지도

K 보육

(1) 유아의 심신의 발달에 관하여

(2) 유아의 생활에 관하여

(3) 유아의 발달과 환경과의 관계

3. 고등학교의 가정과 교육과정 내용

목표; 가정생활의 각 분야에 관한 기초적,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가정생활의 의의를 이해시키고 동시에 가정생활 및 관련된 직업에 필요한 능력과 주체적 실천적인 태도를 기른다.¹²⁾

고등학교 가정에 관한 과목에 있어서는 보통교육에 관한 과목으로서의 「가정일반」, 「생활기술」, 「생활일반」과 직업교육에 관한 과목으로서의 「가정정보처리」부터 「아동복지」까지의 과목의 합계 26과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번 개정에 있어서 가정과를 모든 학생에게 이수하게 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 적성,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응할 수 있도록 「가정일반」외에 새로운 과목으로서 「생활기술」 및 「생활일반」을 개설하고 이것들 중에서 한 과목을 모든 학년에게 선택 이수시키도록 한 것이 특색이다.

제1 가정일반

(1) 가족과 가정생활

- ① 가정의 기능과 가족관계
- ② 가족의 생활과 가정경영
- ③ 생활설계
- ④ 고령자의 생활과 복지

(2) 가정경제와 소비

- ① 가정의 경제생활
- ②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자각
- ③ 생활 정보의 활용

(3) 의생활의 설계와 피복제작

- ① 피복의 기능과 착장
- ② 피복재료와 피복관리
- ③ 피복제작

(4) 식생활의 설계와 조리

- ① 가족의 식사와 영양
- ② 식품의 특질과 선택

(5) 주생활의 설계와 주거의 관리

- ① 주거의 기능과 주생활의 설계
- ② 거주성과 주거의 관리

(6) 幼乳兒의 보육과 부모의 역할

- ① 청년기의 생활방법과 결혼
- ② 모성의 건강과 생명의 탄생
- ③ 유아의 보육
- ④ 어린이의 인간 형성과 부모의 역할

(7) Home project의 실천과 학교, 가정, Club활동 제2 생활기술

(1) 가족과 가정생활

- ① 가족의 기능과 가족관계
- ② 가족의 생활과 가정경영
- ③ 생활설계
- ④ 고령자의 생활과 복지

(2) 어린이의 성장과 부모의 역할

- ① 청소년기의 생활과 결혼
- ② 유아의 성장과 생활
- ③ 부모의 역할과 가정교육

(3) 가정경제와 소비

- ① 가정경제와 생활
- ② 소비생활과 소비자로서의 자각
- ③ 생활정보의 활용

(4) 의식주와 생활기술의 관리

- ① 의생활 ② 식생활 ③ 주생활

(5) 가정생활과 정보

- ① 정보의 수집과 선택
- ② Computer의 활용
- ③ 가정생활과 Computer

(6) 가정생활과 전기기계

- ①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전기, 기계
- ② 가정용 기기의 기능과 활용
- ③ 가정용 기기의 안전관리
- ④ 가정용 기기의 선택법

(7) Home Project의 실천과 학교·가정클럽 활동

(8) 가정원에

- ① 생활과 원예
- ② 야채 및 화초의 재배와 이용
- ③ 녹화환경의 관리

제3 생활일반

(1) 가족과 가정생활

- ① 가정의 기능과 가족관계
- ② 가족의 생활과 가정경영
- ③ 생활설계
- ④ 고령자의 생활과 복지

(2) 어린이의 성장과 부모의 역할

- ① 청년기의 생활과 결혼
- ② 幼乳兒의 성장과 생활
- ③ 부모의 역할과 가정교육

(3) 가정경제와 소비

- ① 가정의 경제생활

- ②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자각
- ③ 생활정보의 활용
- (4) 가족의 건강관리
 - ① 의생활 ② 식생활 ③ 주생활
- (5) 의생활과 피복제작
 - ① 복식 디자인 ② 피복제작 및 수예
 - ③ 수예
- (6) 식생활과 조리
 - ① 식사의 계획 ② 조리
- (7) 주생활과 주거의 계획
 - ① 가족 주거와 주생활
 - ② 주거의 설계
 - ③ 인테리어 디자인
- (8) 幼乳兒의 보육
 - ① 모성의 건강과 생명의 탄생
 - ② 幼乳兒의 발달과 심리
 - ③ 유아의 생활과 놀이
- (9) 가정생활과 정보
 - ① 정보의 수집과 선택
 - ② Computer의 활용
 - ③ 가정생활과 Computer
- (10) Home Project의 실천과 학교 가정 클럽활동

제4 가정 정보처리	제5 과제연구	제6 피복
제7 식물	제8 보육	제9 가정경영
제10 주거	제11 가정간호·복지	제12 소비경제
제13 피복제작	제14 피복재료	제15 피복관리
제16 복식디자인	제17 수예	제18 조리
제19 영양	제20 식품	제21 식품 위생
제22 공중위생	제23 보육원리	제24 소아보건
제25 아동심리	제26 아동복지	

IV. 일본의 중·고등학교 가정과 남녀공동 이수 의 동향

1989년의 교육과정의 개편과 더불어 일본의 소·중·고등학교의 가정과 남녀공동 이수의 과정이 제도상으로 확정되기까지의 동향을 검토해 보려한다.

가정학의 창시자 Lichards는 남성과 여성은 그 역할관계에 있어서 각기의 특성을 살려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Lichards의 Home Economics 운동은 단순한 여성 운동은 아니었다.

Lichards는 남녀의 기회균등과 함께 남녀상호간

의 협조를 강조하고 남녀 각기의 동등한 일을 하기 위한 「가정운동」(Home Movement)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일은 Lake Placid 회의의 결과 1909년에 발족된 미국가정학회(AHEA)에 많은 남성 가정학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명백하여 진다.

「많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지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할때는 나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고 싶다」라는 Lichards의 말은, 자칫하면 여성 중심으로 착각하기 쉬운 가정학에의 중요한 일깨움이 될 것이다.¹³⁾

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남녀 함께 모든 일에 협력해야 한다는 불문율을 일깨워 주기도 한다.

일본의 가정과 교육과정에서 남녀공학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을 倉盛(1988)¹⁴⁾는 가정과 탄생의 시기, 가정과 여자만의 필수화의 시기, 서로 관여하는 시기의 세가지의 관점에 따라서 개관을 정리하였다.

일본의 가정과 교육의 남녀공학 체제의 실시는 종전후의 신교육제도하에서 수립되었다.

중전의 봉건적이고 남녀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전쟁후의 헌법은 근본적인 남녀평등, 남녀동권을 사회 정치적 여러 제도 중에서 보장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남녀동등의 원칙이 명백하게 규정되었다.

종전후 1945년에 일본 문부성이 발표한 「여자교육 쇄신요강」에는 남녀간의 교육의 기회균등, 남자와 병행하는 여자교육, 남녀의 상호존중의 촉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후 1947년에 교육기본법이 제정되고 신교육지침에는 「여자를 개인으로서, 국민으로서 완전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가정과는 민주적 가정 건설자의 육성을 목표로 남녀함께 학습하는 교과로 제도화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제도화된 가정과의 남녀이수는 소학교에서만 정착되고 거의 여자만이 이수하게 되고 만다.

그 요인을 高木(1988)¹⁵⁾는 교육개혁의 주체가 교편을 잡고 있는 교사가 아니고, 과거의 교육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못한 것과, 생산 우선의 노동정책, 가정정책에 휘말린 것이 큰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이 가정과 「탄생의 시기」라고 볼수 있다.

전쟁전서부터 사회통념으로 되어오던 성별역할 분업관은 전쟁후부터 현재까지의 가정과 교육에 있

어서는 변화시킬 수가 없었고 오히려 중·고등학교 가정과는 여자의 성별역할분업의 고정화와 모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일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남녀 평등의 교육이념은 남녀의 특성을 등한시한 것이라는 즉 여성 특성론이 일각에서 대두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은 195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추진되어진 근대과학의 기술혁신 동향의 영향을 받아 후기 중등교육의 지도방침이 수립된다.

즉 능력과 적성, 환경에 따른 다양한 중등교육을 시키려는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기술혁신, 고도 경제성장 사회에 있어서의 유용한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리고 중학교는 기술·가정과가 「남자성향」, 「여자성향」의 두계열로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남녀 별학의 형태를,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가정일반」을 여자만의 필수로 그 이수 형태를 바꾸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자만의 필수화」의 시기이다.

그후 1978년 일본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이 시작되면서 기술·가정과는 여자만의 별도 이수가 폐지되고 남자는 가정계열에서, 여자는 기술계열에서 반드시 한 영역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확정되기에 이른다.

이것이 소위 「서로 관여하기」라고 불리우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받아드리게 된 배경에는, 남녀의 고질화된 역할개념을 해소하고 남녀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때문이기도 하다.¹⁶⁾

1975년 국제 부인년을 시점으로 또한 여성차별 철폐조약의 비준에 힘입어 남녀평등의 교육, 남녀공학에의 전망이 열리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1989년의 신교육과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남녀 공동이수의 꿈이 실현되는 기쁨이 확고하게 마련되기에 이른다.

우선 먼저는 역사적인 흐름속에서 남녀공학에의 흐름을 고찰하여 보았으나 다음은 사회환경의 변천과정에서 제시된 이론을 유형화 하므로서 가정과의 남녀공학의 필연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가정과의 남녀공학의 유형화에 있어서는 藤枝(1977년)¹⁷⁾가 ① 교육적 평등론 ② 생물적 협력론 ③ 사회적 교양론 ④ 반 역할 분업론 ⑤ 가정과 개정론의 5가지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후 野田(1980)¹⁸⁾는 ① 여성해방의 입장에서 ② 어린이의 생활적 자립의 입장에서 ③ 생활우선의 사회실현의 입장에서 ④ 전적인 발달보장의 입장에서 ⑤ 네가지의 입장을 들고 있다.

여기에서 倉盛(1988)¹⁹⁾는 다음 세가지 관점을 남녀공학론의 유형화의 기본적 입장을 들고 있다.

① 남녀의 삶의 방법에의 기대에서 여성해방의 문제로 발전하는 여성문제의 입장 ② 생활에 관련된 교과로서의 현재와 미래를 향한 어린이들의 생활 과제를 기본으로 하는 입장 ③ 가정과라고 하는 교과에서 어떠한 교육을 지향하느냐라고 하는 「가정과 개조」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환언하면 가정과의 남녀공학의 이론은 「인간존중」과 「생활존중」과의 시각의 복합화만으로 그 명쾌한 해답을 얻을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 다음은 남녀공동 이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천과정과 학회 및 각 사회단체와 교육자 스스로의 동향을 더듬어보기로 한다.

당시 일본의 교원노조는 51년경부터 교육연구 활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지역에서의 연구성과를 전국대회에서 서로 교환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였다.

그외에도 가정과교육 연구자연맹이나 산업교육 연구연맹과 같은 연구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을 시작한다.

이미 京都府의 가정과 교사들은 1968년부터 1973년의 개정에 대비하여 연구를 계속하여 1969년부터 「가정일반」 남녀공동 이수 2단위에 관한 지도내용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연구와 지도자료 작성을 경도부 전역에 넓혀 1972년도에는 남녀공수를 일부학교에서 선도 시행하여 1973년부터는 부립전체 학교에서 남녀공동 이수를 실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東京都고등학교 교직원 조합에서도 1972년에 남녀공수 시안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또한 이 무렵 長野縣에서도 교사들이 자주적인 교과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등 남녀공수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교사 스스로가 교육연구에 몰입하여, 이결과를 지역단위로 취합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역시 전쟁후의 교사들의 연구활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이러한 민간의 교육연구가 없었던들 남녀공수의 실천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라고 역설한다.²⁰⁾

당시의 각 사회단체들의 남녀공수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상 또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佐藤(1980)²¹⁾은 뒤늦게나마 1973년 매스컴은 가정과의 여자필수를 문제로 내놓아서 이미 이 문제는 학교교육 내부에 묻어둘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또한 1973년 12월에는 가정과교육 검토회를 개최한 후 「가정과의 남녀공수를 원하는 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데 찬동자는 104명에 이르고 대한 대학 관계자, 중·참의원 의원, 저널리스트, 평론가 등으로 성별로는 남 27명, 여 77명에 이르는 뜻밖게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슬회하고 있다.

또한 가정과의 남녀공동 이수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것은 1971년 12월의 제34회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여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조약]의 영향도 큰 자국이 되었다.

이러한 지구촌 여성들의 차별철폐 및 남녀평등의 메아리가 일본전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각국에 널리 퍼진 여성해방의 소리를 받아 1975년을 국제연합의 국제부인년으로 정해진것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이 남녀공수 운동도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또한 가정과의 공수문제는 참의원의 위원회에서 몇번이고 논의되었으며 각 현의 지방지에서도 일제히 다루고 또한 서명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기에 이른다.²²⁾

이러한 주변의 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여성해방운동의 메아리와 더불어 부인의 해를 향하여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부인단체, 노동단체 등이 여성해방의 제일 큰 장애로서 성별역할 분업의 의식을 조장하는 「가정과 여자만의 필수」 비판에 결집한 것은 「남녀공수를 권고하는 회」 등의 운동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²³⁾

1975년 일본 교육대학협회 제2부회 가정과부문 총회에서도 「가정과의 독자성·새로운 가정과교육 위 구상」, 「가정과에 있어서의 기술의 문제」, 「가정과에 있어서의 남녀공수」 등의 문제가 심도있게 논

의된 흔적도 엿볼 수 있다.

또한 1981년 상기 제2부 회의에서는 고등학교 「가정일반」을 남녀공수로 하는 것과 필수로 하는 요망서와 부인차별 철폐조약의 비준의 요망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기에 이른다.²⁴⁾

1981년 2월 일본 변호사연합회가 내놓은 「고등학교 가정과의 여자만의 필수에 대한 의견서」²⁵⁾에서 고등학교에서 “가정과를 여자만의 필수로 하는 것은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14조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동법 26조 및 교육 기본법의 이념에 반하며 또한 「부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조약」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남녀평등을 더욱 추진하는 견지에서 고등학교에 있어서 여자만의 필수를 중지하고 「남녀에게 필수와 공수로 하도록 하라」는 제언을 하기도 하여 더욱더 큰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각계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문부성은 서구의 예를 논거로 하여 「차별조약에 저촉 안된다」는 해석을 고집하려고 하였다.

교육의 남녀 차별 문제는 가정교육, 기술·직업교육, 진로지도 등 다방면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가정과의 남녀공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 일본 특유의 부인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²⁶⁾

이렇게 사회문제로 가정과의 남녀공수의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가정과교육 검토회를 시작으로 사회교육의 장에서 본 가정과교육 등 무려 14회에 이르는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또한 각 당 의원들의 정책 토론을 듣는 등 바쁜 활동을 전개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수를 하면 가정의 건전성은 쇠퇴하고 가정의 원칙적인 기능을 위태롭게 한다」고 심한 반대지론에 부딪치기도 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와 협력을 구하려면 가정과 자체가 참으로 생활을 배우는 교과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따가운 시선도 있으며, 가정과 자체의 자기반성이나 체질개선(보다 많은 우리들 교사 자신의 문제)을 전제조건으로 남녀공수 운동에 찬동한다고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기도 하였다.²⁷⁾

이렇게해서 1985년 7월 나이로비에서의 [국제연합부인의 10년 세계대회]의 기간중에 일본도 [여자

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하고, 72번째의 체약국이 된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소용돌이치는 사회환경의 변천과정에서 고루한 남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면서 또한 주변사회단체들의 협조와 연구에 힘입어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 남녀공학의 획기적인 계기가 이루어지게 된다.²⁸⁾

드디어 1989년 3월 15일, 소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습지도요령이 일제히 고시되면서, 중학교에서는 기술·가정과의 남녀별 이수규정이 없어지고, 고등학교에서는 [가정 일반] 여자만의 필수는 폐지되고 남녀 공히 [가정 일반], [생활 기술], [생활 일반]에서 한 과목을 선택필수로 하기에 이른다.

V. 가정과교육에 대한 의식과 과제

국제 부인의 해 이후 여러가지 각도로 부인문제가 관심사가 되면서 남녀공수 문제도 점차로 호응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성별 역할분담의 문제, 가정과 필수에 관한 문제 및 교육에 관한 문제만을 발취하여 그 변화과정을 눈여겨 보려한다.²⁹⁾

(1) 일본의 총리부가 1972년과 77년에 행한 「부인에 관한 세론조사」에서 대상은 첫번째는 20세 이상 남녀 1만인, 두번째는 20세 이상의 여성 1만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다.

① 부부의 역할(남편은 바깥, 부인은 안)에 관한 전통적 역할분담에 대하여 남녀 다 함께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②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역할분담 의식에 관하여서는 어느쪽인지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③ 고등학교의 가정과 교육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필수로 배우게 하고싶다는 경향이 높다.

(2) 총리부가 1977년에 실시한 「부인문제에 관한 의식조사」에서 교육에 관한 의식을 본다.

대상은 대학교수, 법률가, 문예·저술가, 주요경영 단체인 부인단체 직원, 의사, 공무원, 노조직원 등 남자 1198명, 여자 1186명이다.

①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성에 따르는 역할분담 의식에 관하여서는 여성의 83%는 고정적인 역할분담을 강조하지 않고, 동감하는 대답은 6

%로 비교적 적다.

② 「성에 의한 역할분담을 강조하지 않고, 남자도 여자도 본인의 개성을 신장하도록 교육한다」라는 물음에는 여자에게 있어서는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③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가정과 교육에 관하여서는 「남녀 함께 배운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여성의 반수에 달하고 「여자만이 배운다」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3) 東京·中野區 아동 청소년부는 1980년 「中野區부인문제실태조사」를 주민 만20~75세 미만의 여성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가정생활을 하려면」 중에서 3개항만을 선택 발취해 본다.

① 고등학교에 있어서 여자만의 가정과 필수에 관하여서는 70대는 여자만 배우는 데 높은 비율을 보이고 20대 후반~30대 전반에 이르는 세대는 「남녀 함께 배운다」에 높은 비율을 나타내서, 현실의 생활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② 남편의 가사 협력도와의 관계를 보면 현실에 있어서 남편의 협력도가 높다고 답한 의견이 많고, 협력도가 낮은 층은 「여자만 배운다」라는 의견에 찬성이 많아서 여기에서는 실태와 의견이 일치함을 보여준다.

③ 성별 역할분업 의식과의 관계에서는 분업에 있어서의 남녀공동 선택의 응답자가 많은 편이다.

상기한 세 조사에서 보더라도 ① 성의 역할분담 의식이 점차로 희미해져 간다. ② 교육은 남녀 다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고교 가정과교육에 관하여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배우게 하고 싶다는 경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丙山, 武井(1984)³⁰⁾는 가정과 교육내용에 대한 부모의 의식조사에서 소학교 가정과 교육에 있어서는 실용적인 지식이나 기능만으로 끝나지 말고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의 과학적인 생각이나 생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교재의 계통성이나 계획성에 기초한 체험학습 등을 통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일본 교육대학 협의회 제2부회가 회원들에게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제3항인 새로운 시대의 「家庭科」, 「家政學」의 나아갈 방향 즉, 급후의 소·중·고·대학에 있어서의 「家庭科」, 「家政學」의 나아갈

방향에 관한 부분만을 검토해 보면³¹⁾ 전반적인 의견으로서 저학년부터 생활학습을 포함하여 폭넓게 가정의 이해시키고 중학에서는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남녀공수에 관심도 갖는다.

이것을 수행하려면 여러 의미에서 가정과의 내용 자체를 개편,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전쟁전의 요리, 재봉 중심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家庭科에서, 남녀가 함께 영위하는 가정생활 전반을 포함하는 학문에 기초를 둔 교과 즉, 인간의 생활 및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과학적으로 배우는 교과로서 자리잡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대학에 있어서 대폭적인 커리큘럼의 수정없는 소·중·고에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재빠르게 교원 양성계 대학·학부에서의 가정학의 방향을 확립할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하여서도 각 대학의 정보를 서로 충분히 교환하면서 회원 전원이 단합하여 가정학의 나아갈 길을 향하여 매진해야 한다고 자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음은 일본 가정학회가 1985년에 전국 규모로 「가정학과 가정과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청」³²⁾에 관한 일반 사회인 16,800명을 대상으로 질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의 요약을 발췌해 보기로 한다.

가정과의 교육내용은, 소학교에서는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에 중점을 두고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계획할 것, 중학교에서는 소학교에서 학습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다 높이면서 동시에 가정생활이나 이웃과의 교류 등에 눈을 돌리도록 할 것이며 고등학교에서는 식생활, 가족, 보육, 가정경영 영역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가정경영 능력을 기를 것 등을 바라는 것이 명백하여 졌다.

또한 남녀가 함께 배우는 내용으로서 소비자문제, 고령자문제 및 가정생활 문제 등 오늘날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취급함과 동시에 귀국 자녀의 교육과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등 국제적 시각에서 내용도 검토해야 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은 고교 가정과 남녀공학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貴田과 増田(1986)³³⁾은 (가정 일반)을 이수한 남학생은, 이수하지 않은 남학생보다 남녀공학으로 이수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주부의 취업, 육아의 책임 등 남녀가 협력하여 생활해나갈려는 의식이 높은 것을 알수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실천적 태도도 높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가정 일반」을 이수한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음을 역설한다.

다음은 일본 가정학회에서 주최한 “21세기의 가정과 교육과 가정학의 과제” 씨리-즈의 결론을 요약해 보면서 앞으로의 가정과 교육의 전망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1) 「소·중·고 가정과에서 본 가정학 교육」에서 高部(1988)³⁴⁾는 “고등학교의 가정과를 남녀함께 필수로 배우다는 방향이 나오기까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주장으로서 「가족, 가정에 관한 학습을 충실하게 하여 가정생활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며 남녀가 협력하여 가정생활을 구축하는 의의를 살리고 싶다」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사는 방법,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길일 것이다”라고 역설한다.

(2) 「앞으로의 가정과교육과 가정학교육」에서 中島(1988)³⁵⁾는 “21세기에는 진지하게 「삶의 보람의 과학」이 인문과학,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으로도 논의될 것이다. 가정학은 그런 뜻에서 21세기의 과학에 가장 가까운곳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종합과학으로서의 실천의 의지를 다지기도 한다.

(3) 「앞으로 가정과가 필요로 하는 교원양성과 가정계 대학의 대응」에서 藤枝(1988)³⁶⁾는 ①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며 ② 가정과 교육자로서

㉠ 제도상의 단위취득만이 육성은 아니다.

㉡ 가정학 전공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것이며,

㉢ 남녀함께 배우는 가정과교육자로서의 지도력을 키워야 하며,

㉣ 인간적인 따뜻함과 크기를 보유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소외되기 쉬운 제도적 재정립과 지도력 양성의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어렵게 남녀공동 이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 지기는 하였지만 실천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전 현상이기는 하지만 가정과의 남녀 공동이수를 계기로 남자에게 매력있는 「인간의 생활의 학으로서 가정학」을 넓게 개방하는 책무를 우리들은 느껴야 할 것”이라고 木村(1988)³⁷⁾는 경고의 일침도 아끼지 않는다.

더욱이 原田(1987)³⁸⁾는 그의 저서에서 가정과는 향간에서는 여자만이 배우는 교과라고 생각되어지

고 있지만 현재는 소학교에서는 남자에게도 가정과를 이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장래는 꼭 중·고등학교에도 이 교육을 시켜야만 할 것이다. 사실은 한때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역행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물론, 남자에게 실시하는 가정과는 여자의 그것과는 양도 내용도 다소는 달라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것은 가족관계, 가정경영, 주거, 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마도 될 것임을 예언하면서 여자만의 필수로 역행된 유감을 실토했기도 한다.

요사이 남녀공학의 가정과 확립에 있어서는 우선 참다운 남녀평등, 개인의 존엄은 무엇이며, 민주적 가정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근본부터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에서 어떻게 성별역할 분업의 변혁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근본적인 가정과교육의 가치관의 재정립을 제안하기도 한다.³⁹⁾

石毛, 伊東(1988)⁴⁰⁾는 가정학의 과제에서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일본 가정학회 회원 4500명을 해아리는 큰 학회로 발전하였지만 한편에서는 가정학은 전쟁전의 가사, 재봉의 실기중심의 분야라는 이미지를 탈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회일반의 평가는 아직도 냉엄한 것이 있다.

현재 우리들의 생활에는 환경문제, 소비자문제, 고령자사회의 진전에 따르는 노인문제, 수험 문제에서 야기되는 청소년의 문제 등 중요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간적 발전을 약속하는 것과 같은 미래사회에의 전망을 여는 것은 사회적 요청으로 되어있다.

가정학자들은 각기의 전문성을 깊게하며 동시에 사회의 변화에 눈을 돌려서 넓은 시야와 높은 식견을 가지고, 소, 중, 고등학교의 가정과 가정과교육의 향상 발전에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욱이 국제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행하여,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논거하고 있다.

이제까지 일본인에게서 볼 수 있는 성역할 의식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져 매스컴이 사회에 잠행시키는 역할의 컸던 것을 생각하면 가정, 학교, 사회가 행하는 남녀평등의 의식형

성이야말로, 앞으로의 어린이들의 가정생활에 관한 인식의 성차를 축소하여가는 지름길일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라고 성차별 의식의 불식의 필요성을 역설한다.⁴¹⁾

어린이들이 쌓는 장래의 가정생활은 앞으로 남녀평등의 견지에서 실현할 수 있게 교육자의 충분한 배려와 인식이 관련되어지는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丙藤(1989)⁴²⁾는 “이제부터의 남녀공학 가정과는 남녀를 불문하고 생활의 주체자로서의 판단력, 역할인지, 그 책임성을 키우고, 인간으로서의 보다 훌륭한 삶을 창조해 나가는 방법을 몸에 배게하는 교육으로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므로서 타교과에서는 대신할 수 없는 독자적인 인간형성의 의의를 명백하게 한다면 남성에게 있어서나 여성에게 있어서나 가정과의 중요도는 높아질 것이며 미래의 가정과 교육은 시대에 의지하지 말고, 독자의 교과이념을 부동의 것으로 확립하여가는 것이 긴급성을 더욱 강하게 느껴마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Lichards⁴³⁾는 「요사이 가정은 붕괴되는 과정에 있다. 어린이들의 행복에 대한 책임은 학교, 경찰, 위생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 결과, 수백 수천의 어린이들의 정신적, 도덕적, 신체적인 악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Lake Placid 회의는 당시의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잘못된 경향을 바르게 하고 바른 경향을 키우는 윤리적·실천적 원칙을 교육에 적용시키려는 것이다. 교육은 인간의 복지와 관계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때를 예견하고 표면 밑에 있는 것을 분별하고 시세중에서 그 이상의 것을 읽고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다」라고 Lake Placid 회의의 의의를 재확인하였다.

가정과교육의 내용도 새롭게 검토하는 일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岩崎(1985)⁴⁴⁾는 종래에는 여자가 주로 배운다고 하는 제도적인 발상의 바탕에서 여자들이 배우기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회의 요망과 변천에 순응하여, 남녀의 학습에 적합한 내용과, 남녀 자유롭게 선택하여 배우는데 타당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남녀 각기 개성있는 인간으로서, 그날 그날의 생활을 자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몸에 길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앞으로는 컴퓨터교

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교과교육에 있어서 소·중·고·대학을 막론하고 「CAI 도입의 가능성」^{45)~49)}을 原田, 佐藤 등은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중학생의 컴퓨터교육 조사에서도 학교교육의 장외라고는 하지만 학생들과 컴퓨터와의 접촉은 빠른 단계로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이 컴퓨터에의 지향은 비교적 높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학교를 비롯하여 광범위한 범위에서 적절한 컴퓨터 교육을 위한 시급한 환경정비가 요망되며 어느 영역에서나 「CAI 도입의 가능성」은 금후 더욱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그 가능성의 전망을 시준한다.

앞으로 각과 지도에 각 영역별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입체적인 지도를 한다면 보다 큰 신속하고도 효과있는 지도가 가능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특히 「소학교 가정과에 있어서의 실천·연구」에서 藤枝, 堀田 등(1986)⁵⁰⁾은 저학년에서부터 소비자교육의 도입과 생활자교육,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실천적인 습관이 익숙해지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또한 櫛田(1984)⁵¹⁾과 村田, 田結 등(1990)⁵²⁾은 남녀공학 가정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신하면서 조속하고 다양한 공학가정과의 교재개발과 아직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은 여자성향의 것이 많고 인간교육의 관점에서는 불완전하다.

따라서 자주적인 내용의 재편성이 필요하고 가정과를 담당하는 남녀교사들의 지도방법의 연구와 가치관의 재정립도 큰 당면과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현행의 가정과교육에 의문을 느끼고 능동적인 해결을 요망하는 이들로 구성된 「가정과교육 연구자연맹」편의 “출급게 알 수 있는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가정과의 수업”^{53)~55)}에서 오늘날 가정이나 지역의 빛나간 것이 많아서 그 피해는 어린이들에게까지 깊숙히 스며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을 재정립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그들의 학력제고나 인격형성에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고 지도하는 남녀를 불문한 국민적 기초교양으로서의 남녀공학 가정과의 실천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또한 일본 문부성이 펴낸 「문교시책」⁵⁶⁾에 의하면 등교거부, 중·고교 중퇴자의 수도 매년 증가하기 시작하여 고교중퇴자가 1988년에만 11만 6천명에 이르는 놀라운 수치를 보고하고 있고 역시 여성문제중에 가장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夫婦別氏

(姓)⁵⁷⁾ 문제 등의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일본 특유의 속 사정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VI. 요약 및 결론

전쟁전의 일본의 여자교육의 전통적 성격과 전쟁 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소·중·고교의 가정과교육의 흐름이 일본의 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정학의 사회적 통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전쟁전의 여자교육의 특징으로서 남녀별학과 현모양처주의를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역할분업을 규범화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

2. 1945년 12월 「여자교육 쇄신요강」이 발표되고 1947년 교육의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가정과의 남녀공학이 제도상으로 보장받기에 이른다.

그러나 소학교에서만 5, 6학년에서 실행되는데 머무른다.

3. 1950년대 후반부터 중학교의 「직업 가정과」가 산업화사회의 발전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기술 가정과」로 변경되면서 남녀별학의 기능의 강화에로 방향이 전환되고 고등학교 「가정일반」은 여자만의 필수 이수형태를 출현시킨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적어도 여자만은 필수로 해야한다는 특성론에 기반을 둔 가정과 여자필수론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1960년 가정과 여자필수가 확정 실시되기에 이른다.

4. 1970년의 개정에서 고등학교 가정일반의 남녀별학 교육의 체제는 굳어져가는 데 반대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남녀공동 이수의 동향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1) 가정과 교사들 자신들의 적극적인 연구활동과 학회 및 교육대학협회 등의 움직임 등도 관심있게 볼 일이다.

(2) 가정과의 남녀공수를 원하는 회의의 세미나와 토론회 서명운동, 각 여성단체들의 능동적인 활동상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3) 매스컴이나 참의원의원 회의에서 또한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토론을 시도하는 등 가정과 공수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되고 일본 변호사협회의 필수철폐의 유권해석과 교육과정의 개선요구를 제안하는 등 남성들까지도 이 운동에 동참하는 현상 등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움직임의 도화선은 역시 1975년의 국제연합의 부인의 해와 1985년의 「국제연합 부인의 10년 세계회의」에서의 「여자 성차별 철폐운동」의 서명에서 그 명맥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1989년도 개정된 새로운 교육과정의 특징은 전면적으로 남녀구별없이 가정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소학교에 생활과를 신설하고 저학년때부터 생활인으로서의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귀국자녀 및 외국유학생과의 유대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것도 이색적이다.

중학교에서는 「정보기초」에서 컴퓨터의 교육과, 「가정생활」의 교과를 신설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고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가정정보처리」, 「과제연구」, 「간호·복지」, 「소비경제」, 「가정경영·주거」를 「가정경영」과 「주거」로 분리하여 인간교육, 생활교육, 기술교육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또한 일반 부녀자들의 가정교육에 대한 의식을 종합해보면 성의 역할분담의식은 점차로 회박해지는 가운데 개성신장 교육에 관심이 많고 가정과 교육은 남녀 공히 함께 필수로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난다.

7. 가정교육에 대한 과제로서는 인간생활의 학문으로 남자도 선호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의 과감한 개혁의 필요성과 종합영역을 설치하고 과학으로서의 독자적인 정립과 오늘날 산적한 사회문제 해결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정과 전공자들의 가치관과 과감한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따듯한 일침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8. 가정학회원이나 교육자 스스로의 의견 역시 가사재봉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오늘날 당면한 환경, 소비자, 노인, 청소년, 귀국자녀, 외국유학생의 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한다는 자성의 소리도 높다.

남녀가 함께하는 가정생활에 중점을 둔 인간의 생활환경을 보다 과학적으로 영위하는 능력을 기르고 국제교류 등 가정교육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할 것 등을 다짐하기도 한다.

일본의 가정교육의 실상을 검토하면서 미국의 가정학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본다.

미국의 Home Economics의 환경에 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Lichards이며 그가 주재하는 Lake Placid 회의에 있어서 Home Economics는 가정에 관한 법, 이상적인 가정생활에 관한 학문과 교육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적인 가정생활에 관한 관점은 이 회의에서는 두가지의 의견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 하나는 Home Economics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기능적 경제적으로 경영하는 것이고 그것을 교육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Home Economics는 가정을 통하여 인간의 최대한의 능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것이고 이와같이 개발된 인간의 사회참여에 의하여 인간의 자기실현을 촉진한다고 하는 의견이다.⁵⁰⁾

여하튼 100년전 Lichards가 부르짖는 Home Economics 운동중 환경, 소비자, 남녀함께 일하는 문제, 핵가족의 부산물인 가정붕괴의 위험성, 자녀교육 문제 등은 오늘날 일본 뿐만 아니라 지구촌 어디서나 당면한,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그의 선경지명을 새삼스럽게 느끼게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민족을 초월하고 범세계적인 문제로 가정학전공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시급하게 요망된다.

일본에 있어서 가정교육의 실태를 소·중·고등학교의 가정교육과정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해보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전통적인 동양의 유교사상이 깊숙히 자리 잡고 있는 남존여비의 고루한 사회환경 속에서 뿌리내린 여자교육은 남녀차별이 심한 현모양처 교육 그것이었다.

또한 종전후에 급변한 사회환경속에서 남녀공학의 기틀이 마련되는 가운데 여성의 특성론이 대두되고 여자만의 필수로 후퇴하는 전통도 겪었지만 국제연합의 부인의 해와 성차별 철폐조약등의 세계정세에 힘입어 서로 관여하기를 거쳐 드디어 가정과 남녀공동 이수시 남녀공학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그 과정에 있어서 반대 지론도 있기는 있었지만 여성사회단체, 교사, 전공자, 학자들의 팔목할 만한 활동과 더욱이 일본변호사협회, 매스콤, 정치권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등 남성위주의 사회속에 우뚝선 가정교육의 뿌리내린 모습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새로운 학습지도 요령에 의하면 소·중·고 일관하여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사회의 변화등에 대응하여 남녀가 협력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일이나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시키는 일 등의 관점에서 실천적 체험적 학습을 충실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속적인 교육과정의 개편을 다양하게 시도한다.

또한 소학교에 새로 신설된 「생활과」에서 귀국자녀문제, 유학생 문제 등을 다루며 특히 중학교에서는 「가정생활과」, 「정보기초」에서 컴퓨터 교육을 「가정정보처리」, 「과제연구」 등의 과정을 신설하여 체험학습을 통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넷째로 또한 Lake Placieds 회의에서 다루고 시도하는 근본흐름은 일본의 가정과와 가정과 교육의 본질인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간육성과 거의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가치관의 변화와 핵가족의 가정생활에서 오는 어린이의 양육문제, 노인문제, 환경문제, 청소년문제, 이혼문제, 소비자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회문제들은 세계각국이 당면한 공통과제이다.

바로 이러한 산적한 문제에 우리 가정학자들이 서로 국제교류를 통하여 공동연구하고 노력하는 능동적인 가정과교육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일본의 사회인들의 성역할분업의식도 흥미해져가는 가운데 남녀 공히 생활속에 길들여지는 가정과 특유의 독자적인 고차원적이고 흥미있는 교육과정의 개발을 거듭한다면 생활의 질을 높이는 교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섯번째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 볼 때 조직적인 HEIB(Home Economics In Business)운동의 적극적인 실천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가정과교육과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여성문제, 성역할분업론이 아닌 남녀공히 함께하는 민족을 초월한 세계평화의 꿈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번째로 21세기의 동북아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에 봉사 헌신하는 아량 넓고 능동적인 가정과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 또한 가슴깊이 명심해야 할 우리들의 과제일 것이다.

또한 여성만의 학문이 아닌 남성속에 깊숙히 뛰

어 들어가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참 고 문 헌

1. 藤枝惠子, 内藤, 山下, 西村, 小學校家庭科教育法, 家政教育社, 1989.
2. 今井光映, 紀嘉子, アメリカ 家政學史, 光生館, 1990.
3. 常見 育男, 家政學 成立史, 光生館, 1971.
4. 常見 育男, 家政學 成立史, 전게서
5. 原田富士子, 岡村, 武井, わが國の義務教育における家庭科教育方法の歴史的研究, (3),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Vol. 10
6. 朴木佳緒留, 鈴木, 資料からみる戦後家庭科のあゆみ, 學術圖書出版社, 1990.
7. 原田富士子, 岡村, 武井, 전개논문
8. 植村千枝, 家政學事典, 日本家政學會編, 朝倉書店, 1990.
9. 文部省, 學習指導要領, 1989.
10. 文部省, 小學校指導書, 家庭編, 1989.
11. 文部省, 中學校指導書, 技術·家庭編, 1989.
12. 文部省,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 1989.
13. C.L. ハント著, 小木 紀之, 宮原 佑弘 譯 エレン・H.リチャーズの生涯. 家政學育社, 1980.
14. 倉盛三知代, 家庭科教育論, [現代教科教育シリーズ8] 1988.
15. 高木葉子, 家庭科の 男女履修論の考察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Vol. 21, No. 1, 1988.
16. 倉盛三知代, 전게서
17. 藤枝惠子, 家庭科の男女共修問題と家政學, 衣生活, 1977.
18. 野田滿智子, 家庭科における共學, 現代家庭研究, 1980.
19. 倉盛三知代, 전게서
20. 佐藤慶子, 家庭科, なぜ女け! 家庭科の男女共修をすすめる會編, 1980.
21. 佐藤慶子, 전게서
22. 半田たつ子, 家庭科, なぜ女だけ! 家庭科の男女共修をすすめる會編, 1985.
23. 駒野陽子, 家庭科, なぜ女だけ! 家庭科の男女共修をすすめる會編, 1985.
24. 30週年記念資料集, 日本教育大學協會 第二部會 家庭科部門, 1985.

25. 増本敏子, 家庭科, 男女にも! 家庭科の男女共修をすすめる會編, 1985.
26. 和田典子, 高校家庭科の授業, 家庭科教育研究聯盟編, あゆみ出版, 1987.
27. 中嶋里美, 家庭科, なぜ女だけ! 전게서
28. 朴木, 鈴木, 전게서
29. 八島紀子, 家庭科, 男子にも! 전게서
30. 内山直子・武井洋子, 家庭科教育内容に對する親の意識,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Vol. 27, No. 3. 1986.
31. 妻鹿徇子, 高木貴美子, 30週年記念資料集 전게서
32. 石毛フミ子, 伊東清枝, 高校家庭科教育, 日本家政學會編, 1988.
33. 貴田康子, 増田久子, 高校家庭科男女共學に關する 調査研究,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Vol. 27, No. 3. 1986.
34. 高部和子, 21世紀家庭科教育と家政學の課題シリーズ ② 小・中・高家庭科から見た家政學教育, 日本家政學會誌 Vol. 39, No. 7, 1988.
35. 中島利誠, 30) 전게서 ③ これからの家庭科教育と家政學教育, 日本家政學會誌, Vol. 39, No. 8, 1988.
36. 藤枝應子, これからの家庭科が必要とする教員養成と家庭系大學の對應, 日本家政學會誌, Vol. 39, No. 9, 1988.
37. 木村靜枝, 「家政學」を一般教育科目に, 日本家政學會誌 Vol. 39, No. 11, 1988.
38. 原田一, 家政學根本問題—解説家政學原論 家政學育社, 1987.
39. 高木葉子, 家庭科の男女履修論の考察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Vol. 21, No. 1, 1988.
40. 石毛フミ子, 伊東清枝, 新時代への家庭科教育, 日本家政學會 1988.
41. 石毛フミ子, 現代の子どもたちは家庭生活どう見ているか, 日本家庭科教育學會, 1984.
42. 内藤道子, これからの女性と家庭科教育, 家庭科教育 Vol. 63, No. 14, 1989.
43. 今井光映, 紀嘉子, アメリカ 家政學史, 光生館, p. 80, 1990.
44. 岩崎芳枝, 現代の子どもたちは家庭生活で何ができるか, 日本家庭科教育學會, 1985.
45. 原田睦夫, 佐藤文子, 中學校家庭科食物領域におけるCAI導入の可能性, 横濱國立大學教育紀要, 第28集, 1988.
46. 原田睦夫, 佐藤文子, 中學校 家庭科被服領域におけるCAI導入の可能性, 横濱國立大學教育紀要, 第28集, 1988.
47. 藤枝應子, 佐藤文子, 中學校家庭科教育へCAI導入を志向した現職教育の試み 横濱國立大學教育紀要, 第28集, 1988.
48. 佐藤文子, 竹田純子, 中學校 家庭科食物領域におけるパソコン導入授業の有効性, 日本家庭科教育學會誌 Vol. 33, No. 2, 1990.
49. 佐藤文子, 教員養成課程學生のCAIに關する意識, 上越教育大學研究紀要, Vol. 9, No. 3, 1990.
50. 藤枝應子, 堀田剛吉等, 小學校家庭科における實踐・研究, 家政教育史, 1986.
51. 節田眞燈, 男女共學の中學校家庭科, 家政教育社, 1984.
52. 村田泰彦, 田結庄順子, 共學家庭科の實踐, 光生館, 1990.
53. 和田典子, たのしくわかる小學校家庭科の授業, 家庭科教育研究者聯盟, あゆみ出版社, 1987.
54. 和田典子, たのしくわかる中學校家庭科の授業, 家庭科教育研究者聯盟, あゆみ出版社, 1987.
55. 和田典子, たのしくわかる高學校家庭科の授業, 家庭科教育研究者聯盟, あゆみ出版社, 1987.
56. 文部省編, 我國の文教施策, 1991.
57. 久武綾子, 夫婦別氏(姓)問題, 家庭科教育, [現代女性問題], 家政教育社, 1989.
58. 今井 光映, 紀嘉子, アメリカ 家政學史, 전게서. 1990.